

美 우주인 2명 스페이스X 캡슐로 해상귀환

민간주도 우주왕복 성공

낙하산 펴고 멕시코만에 안착

우주정거장서 62일간 임무수행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로버트 벤켄과 더글러스 헐리를 태운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 '크루 드래건'(인테버) 캡슐이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着水)한 후 스페이스X 지원팀과 호기심에 찬 보트 위 물놀이객들이 캡슐 근처로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두 달간 머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이 해상에 내려앉는 방식으로 2일(현지시간) 오후 지구로 귀환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블 벤켄이 탑승한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인 '크루 드래건' 캡슐이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펜서콜라 연안 해상에 착수(着水)했다.

이번처럼 미 우주비행사가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하는 '스플래시 다운' 방식은 1975년 이후 45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전의 마지막 해상 귀환은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협력 프로그램인 '아폴로-소유스 테스트 프로젝트'에 따라 1975년 7월 24일 태평양에서 이뤄진 바 있다.

헐리와 벤켄은 지난 5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에 탑승해 우주로 날아갔으며, 62일 동안 ISS에 머물며 우주유영, 과학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민간 우주탐사 시대의 문을 연 우주비행사들이며 이들의 귀환은 2011년 미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9년 만에 미국 우주비행사가 민간 우주선을 이용해 처음으로 우주 왕복을 완수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날 귀환은 아무런 결함 없이 제 시간에 이뤄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귀환 예정 시간은 오후 2시48분(이하 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3일 오전 3시48분)이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날 낮 12시51분께 마지막 궤도 비행을 한 뒤 귀환을 위한 대기권 진입을 위해 오후 1시52분께 캡슐 동체를 분리시켰다. 이어 화씨 3500도(섭씨 1900도)에 이르는 고열을 견뎌내고 대기권 재진입 과정을 거쳤다. 해상 귀환을 앞두고는 4개의 대형 낙하산을 펴고 바다에 내려앉았다. 앞서 이들은 1일 오후 7시34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상공 430km 지점에서 ISS를 출발, 지구 귀환 비행에 올랐다.

나사와 스페이스X는 우주비행사들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멕시코만 해상에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 40여명이 탑승한 선박을 띄워 캡슐을 회수했다.

회수선 '고 내비게이터'가 '드래건 인테버' 캡슐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고 캡슐 해치 개방이 지연되다가 마침내 해치가 열리고 우주비행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DPA통신은 "두 우주비행사는 스프래시 다운 후 1시간여가 지난 뒤 우주복을 입은 채로 캡슐에서 나와 64일 전에 지구를 떠난 이후 처음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고 전했다.

두 우주비행사는 갑판 위 캡슐을 벗어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으며 주변의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주비행사들의 귀환 직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우주비행사들이 2개월 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후 지구로 돌아왔다면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이스X 측은 9월 말께 다음 우주비행사들을 우주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으며 4명인 이들 우주비행사의 임무는 우주정거장에서 6개월을 보내는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43〉 금 세종

금 세종(1123-1189)의 이름은 완안옹(完顔雍)으로 금나라 5대 황제다. 전임 황제 해릉왕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왕조의 안정 기조를 구축한 명군이다.

태조 아골타의 3남인 완안종보의 아들로 여진 이름은 오록(烏祿)이다. 12세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해릉왕과는 사촌 관계다. 해릉왕은 1149년 즉위 후 수많은 종친과 중신을 처형했다. 완안옹은 현 요양에 해당하는 동경 유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자신도 살해될 것을 우려했다. 해릉왕은 동경 부유수로 고준복을 임명해 그를 염탐했다. 해릉왕은 남송 정벌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다. 대남송 전쟁의 위험성을 간한 적모조차 살해

경선은 기존의 화약대로 화포로 하고 종래의 군신 관계를 속질 관계로 바꿨다. 세폐는 기존의 은 25만냥 비단 25만필에서 은 20만냥 비단 20만필로 약간 남송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206년 두 나라가 다시 싸우기까지 약 40년간 화평이 유지되었다.

송·금 화약 이후 세종은 내치에 전념하였다. 금은 대송 전쟁과 거란의 반란으로 엄청난 군비를 지출해야 했다.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곡물을 납부한 관직을 주는 입속보관(入粟補官)제를 실시하였다. 승려에게 면허를 주는 도참제(度牒制)를 시행하였다. 10년마다 민간의 재산을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여진족 특유의 정신과 문화가 상실되는 것을 극력 경계하였다. 여진어와 여진문자를 쓸 것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문화

금 왕조 안정 기조 구축한 명군

하는 난행을 저질렀다. 생사 존망의 위기에 몰린 완안옹은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1161년 즉위하니 세종이다. 군대를 일으켜 금의 국도 연경에 입성했다. 해릉왕의 폭정에 시달린 종친, 중신 등이 적극 호응했음은 물론이다. 연호를 대정(大正)으로 개원하고 해릉왕의 수십 가지 과오를 공개했다. 수백명의 종친과 중진을 이유없이 학살한 일, 상경(上京) 회동부의 궁전을 파괴한 일, 백성들을 강제 징집한 일 등이 열거되었다. 해릉왕은 남송과의 전투 중 부관 완안원의가 주도한 쿠데타로 살해되었다.

세종은 남하한 군대를 철수시키고 남송과의 종전 협상에 나섰다. 세종은 우선 북방에서 거병한 거란족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강경하게 반란군 토벌에 나서서 한편 완안원의를 사자로 보내 설득 작업에 나섰다. 반란군의 일부는 서쪽의 서요로 탈출했고 나머지는 진압되었다. 세종은 주모자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 온건한 조치를 실시해 내란을 비교적 조기에 평정했다.

남송도 초대 황제인 고종이 황태자인 조신에게 양위하고 태상황이 되었다. 조신은 1162년 2대 황제 효종으로 즉위했다. 금에는 세종, 남송에는 효종이라는 유능한 군주가 등장하면서 양국의 화평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결국 1165년 송·금 화약이 체결되었다. 국

적으로 우월한 한족문화에 급속도로 동화되었다. 여진의 문화를 낮춰보는 문화적 사대주의가 심화되었다.

여진인은 분배된 땅을 제대로 경작하지 않아 토지를 상실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일하지 않고 사치에 빠지는 풍조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가난에 빠진 여진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땅, 한족이 경작하고 있는 국유지를 회수해 여진족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로 인해 한족의 반금(反金) 정서가 심해졌다. 거란족의 이반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세종은 거란족을 위무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거란족의 군사조직인 맹안모국을 폐지했다가 후일 다시 부활시켰다. 거란족과 여진족의 통혼(通婚)을 장려해 민족화합을 도모했다. 1177년 세종은 조칙을 내려 양 민족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 다수의 거란족을 상경 등 북만주 땅에 강제 이주시켰다. 거란 관료의 수도 줄이고 거란 문자의 사용도 불허하였다. 기본적으로 수렵과 어업에 종사하는 정주형 여진족과 유목형 거란족 간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다. 회유책과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종의 고민이었다. 1189년 소요순시대(小堯舜時代)라 불리는 세종의 치세가 끝나고 손자인 장종이 즉위했다.

“트럼프·김정은 ‘깜짝 회담’ 변수는 중국”

SCMP “中 양국 관계개선 불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사의 최대 변수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의 서프라이즈’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10월의 서프라이즈’란 역대 미국 대선에서 선거전 막판에 유권자의 표심과 판세에 영향을 주려고 야심 차게 준비한 대형 반전 이벤트를 일컫는다.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장은 최근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

다’는 제목의 글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올 가을 아시아국가의 한 수도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려 합의문이 서명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겪는 북한으로서는 무역과 원유 수입 등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백악관 “미 대선 11월3일 예정대로” 못박아

우편투표 문제는 거듭 제기

미국 백악관이 올해 미 대선이 11월 3일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말 난데없이 대선연기론을 띄웠다 물려선 가운데 백악관이 대선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일단 추가적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11월 3일 선거를 치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하는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는 우편투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

을 거론한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냐는 질문에 “그것은 의문형이었다”라고 즉답을 피한 채 “대통령이 ‘우리가 100% 보편적인 우편투표를 도입할 경우 (선거당일인) 11월 3일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연기론 언급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선거 결과와 내년 1월3일이 되도록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보편적인 우편 투표(바람직한 부재자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도입으로 2020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며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대선연기론을 제안하는 ‘폭탄트윗’을 날린 바 있다. /연합뉴스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